

미 증시, 스위스 정부의 CS 안정 논의 소식에 하락폭 축소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CS 불안 불구 대형 기술주 강세로 나스닥 상승

•미 증시는 크레딧 스위스(-13.94%)가 파산 우려가 부각되며 급락하자 금융주 중심으로 하락. 더불어 이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 속 국제유가의 급락세가 이어지자 에너지 업종도 동반 하락. 그러나 장 후반 스위스 정부가 크레딧 스위스 안정을 위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낙폭을 축소. 특히 유로화 약세로 강세를 보이던 달러화가 그 폭을 축소하자 재무제표가 견고한 대형 기술주의 강세가 뚜렷하게 진행되며 나스닥은 상승 전환하는 등 하락폭을 축소하며 마감(다우 -0.87%, 나스닥 +0.05%, S&P500 -0.70%, 러셀2000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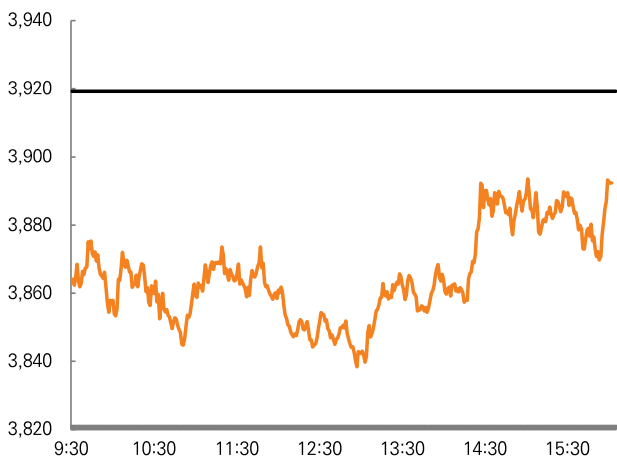
특징 종목: 금융주, 에너지 부진 Vs. 대형 기술주 강세

•크레딧 스위스(-13.94%)가 파산 우려가 부각되며 급락하자 부실 우려가 부각되었던 퍼스트 리퍼블릭(-21.37%) 등도 부진. 반면, 찰스 슈왈츠(+5.09%)은 과매도 기대 속 실리콘밸리 붕괴 후 승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유입되며 강세. 엑스모빌(-4.97%) 등 에너지 업종은 물론, 프리포트 맥모란(-6.65%) 등 광산업종, US스틸(-9.65%) 등 철강업종, 캐터필러(-3.73%) 등 기계업종등은 경기 위축 우려로 하락. 알파벳(+2.28%), MS(+1.78%), 아마존(+1.39%), 애플(+0.26%), 메타 플랫폼스(+1.92%) 등 대형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대응 속 상승

한국 증시 전망: 대형주 중심으로 제한적 등락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는 1.61%, MSCI 신흥 지수 ETF는 1.7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2.2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92% 하락. KOSPI는 0.7% 내외 하락 출발 예상.
•CS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언급한 가운데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적인 투자는 규제에 의해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자 급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된 점이 부담. 그렇지만, 스위스 정부가 크레딧 스위스 지원을 위한 옵션을 논의하고 스위스 중앙은행은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7%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낙폭을 확대하기 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c	2,379.72	+1.31	상해종합	3,263.32	+0.55
KOSDAQ	781.17	+3.05	홍콩항셱	19,539.87	+1.52
DOW	31,874.57	-0.87	베트남	1,062.19	+2.12
NASDAQ	11,434.05	+0.05	유로스톡스 50	4,034.92	-3.46
S&P 500	3,891.93	-0.70	영국	7,344.45	-3.83
캐나다	19,378.84	-1.60	독일	14,735.26	-3.27
일본	27,229.48	+0.03	프랑스	6,885.71	-3.5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크레딧 스위스 ② 소매판매와 생산자물가지수

160년 역사의 CS(-13.94%)는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규제에 의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며 때문에 추가 금융지원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하자 급락. CS의 재정 문제는 지난해 부터 화두가 되어 왔었는데 구조조정과 사업 모델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환경으로 대규모 손실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어 왔었음.

특히 2021년 3월 그린실 캐피탈 파산과 아케고스 캐피탈 사태로 대규모 손실이 나는 등 리스크 관리 실패가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범죄자 비밀 계좌 개설, 미행 스캔들 등 도덕적인 문제도 불거지면서 문제가 확산. 그런 가운데 지난 10월 결국 사우디 국립은행에 9.9%의 지분을 매각하며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음. 그렇지만, 한 때 대규모 자금인출로 1조 6천억 달러를 상회하던 자금이 1조 4천억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신뢰의 문제가 지속.

한편, CS는 지난 주 발표를 앞두고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의 요청으로 연기되었던 연례 보고서 발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재무 보고에 대한 그룹 내부 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중대한 결함을 개선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 그렇지만, 5년 CDS 프리미엄이 500bp를 넘기는 등 급등하며 파산 우려가 확산돼 유럽 지역 금융 부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물론, CS의 CDS가 급등했을 뿐 유니 크레딧을 비롯해 도이체 뱅크 등의 CDS는 여전히 안정적.

CS와 관련, 지난 10월 사우디 국립은행에 지분 매각 후 급진적인 구조조정과 대규모 банкр려를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재무제표를 갖게 됐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비록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으나, 파산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의 전개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 물론,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수익성 문제를 해결해야 함. 그런 가운데 스위스 정부가 CS 안정화를 위한 옵션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짐. 더불어 스위스 중앙은행이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시장은 안정을 보임. 특히 CS 우려로 약세를 보이던 유로화가 약세 폭을 축소했고 미 증시 또한 낙폭을 축소한 가운데 재무제표가 견고한 대형 기술주 강세로 나스닥은 상승 전환.

미국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한 가운데 전년 대비로도 4.6%로 둔화되며 물가 안정이 진행. 최종 수요 부문이 1.2%에서 -0.2%로 위축되었고 최종 수요 서비스 부문도 전월 대비 0.1% 하락. 중간 수요 품목도 전월 대비 0.4% 하락했는데 식품과 에너지 부문의 하락이 이를 주도. 반면, 서비스 부문은 0.3% 상승을 유지. 이러한 생산자 물가지수 둔화는 향후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물가 안정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런 가운데 미국 2월 소매판매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3.2% 증가와 달리 0.4% 감소로 발표되었으며 운송과 가솔린을 제외한 소매판매도 2.8% 증가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위축. 특히 자동차 및 부품이 전월 대비 7.1% 증가에서 1.8% 감소로 위축된 가운데 백화점이 18.1% 증가에서 4.0% 감소로 전환했으며, 음식서비스 등이 5.6% 증가에서 2.2% 감소로 전환. 이는 지난 1월 소매판매 깜짝 증가가 결국은 온화한 날씨로 인한 결과이며, 연속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모습.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주 의회 청문회에서 FOMC를 앞두고 중요한 경제지표가 많으며, 이를 지켜 보고 3월 통화정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 했는데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에 이어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판매 등의 위축은 결국 연준의 온건한 FOMC 가능성을 높임.



금융주 부진 Vs. 대형 기술주 강세

크레디트 스위스(-13.94%)가 파산 우려가 부각되며 급락하자 부실 우려가 부각되었던 퍼스트 리 퍼블릭(-21.37%), US뱅크(-5.52%) 등도 부진. 한편, CS의 이슈가 부각되자 JP모건(-4.72%), BOA(-0.94%), 웰스파고(-3.29%)는 물론 골드만 삭스(-3.09%), 모간스탠리(-5.09%) 등도 매 물이 출회되며 하락. 반면, 전일 수급적인 요인으로 급등에서 장중 한 때 하락했던 웨스턴 얼라이 언스 뱅크(+8.30%)는 과매도 기대 속 상승. 찰스 슈왑(+5.09%)도 과매도 기대 속 실리콘밸리 붐과 후 큰 승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유입되며 강세.

엑슨모빌(-4.97%), 셰브론(-4.33%) 등 에너지 업종은 물론, 프리포트 맥모란(-6.65%), 뉴코(-7.32%) 등 광산업종, US스틸(-9.65%) 등 철강 업종, 그리고 캐터필러(-3.73%) 등 기계업종은 물론, 허니웰(-2.51%) 등 산업재와 함께 보잉(-4.38%), 델타 항공(-6.32%) 등 항공주, 부킹 홀딩스(-2.42%) 등의 여행주는 금융주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로 하락.

반면, 알파벳(+2.28%), MS(+1.78%), 아마존(+1.39%), 애플(+0.26%), 메타 플랫폼스(+1.92%) 등 대형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대응 속 상승. 월마트(+1.12%), 코스트코(+0.78%) 등의 필수 소비재, 듀크에너지(+1.83%) 등의 유틸리티, 아메리 칸 타워(+1.25%) 등의 리츠 금융 업종 등 경기 방어주들은 견고한 모습.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6.33	대형 가치주 ETF (IVE)	-0.87
클린테크 ETF (CTEC)	-3.85	중형 가치주 ETF (IWS)	-1.98
소매업체 ETF (XLY)	-0.15	소형 가치주 ETF (IWN)	-1.56
온라인소매 ETF (EBIZ)	-1.34	대형 성장주 ETF (VUG)	+0.03
미국 인프라 ETF (PAVE)	-4.03	중형 성장주 ETF (IWP)	-1.50
핀테크 ETF (FINX)	-1.10	소형 성장주 ETF (IWO)	-1.83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37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1.57
클라우드 ETF (CLOU)	+0.30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1.93
사이버보안 ETF (BUG)	-0.50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91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2.26	미국 국채 ETF (IEF)	+1.44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2.85	하이일드 ETF (JNK)	-0.45
바이오섹터 ETF (IBB)	-0.70	신흥국 채권 ETF (EMBD)	+0.42
로봇&AI ETF (BOTZ)	-2.32	물가연동채 ETF (TIP)	+1.22
반도체 ETF (SMH)	-1.12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96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커뮤니케이션	178.48	+1.50	+0.77	-2.98
유틸리티	338.93	+1.34	+1.70	-2.13
필수소비재	755.75	+0.68	+0.54	-1.32
IT	2,435.24	+0.03	-0.37	-3.05
부동산	231.77	+0.00	-3.15	-8.17
헬스케어	1,467.49	-0.17	-0.16	-4.63
경기소비재	1,090.94	-0.21	-1.65	-8.70
산업재	818.08	-2.51	-5.28	-6.49
금융	519.95	-2.91	-10.33	-14.84
소재	475.82	-3.28	-7.63	-9.02
에너지	588.20	-5.42	-9.04	-12.9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대형주 중심 제한적인 등락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는 1.61%, MSCI 신흥 지수 ETF는 1.7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12.2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92% 하락. KOSPI는 0.7%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지역 은행주 강세와 둔화된 소비자 물가지수로 상승하자 강세를 보임. 더불어 장중 발표된 중국의 실물 경제지표가 견고한 가운데 실업률이 상승하자 추가적인 경기 부양 기대 심리가 부각된 점도 우호적. 다만, 장 후반 크레디트 스위스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소식에 순매수하던 외국인이 매물을 내놓자 상승분을 일부 축소하며 마감. 결국 KOSPI는 1.31%, KOSDAQ은 3.05%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크레디트 스위스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재무 보고에 대한 그룹 내부 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언급한 가운데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적인 투자는 규제 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자 급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전일 안정을 찾았던 미국 금융주가 이로 인해 크게 하락한 점,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된 점도 한국 증시에 부담.

그렇지만, 스위스 정부가 크레디트 스위스 지원을 위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스위스 중앙은행은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결국 크레디트 스위스 우려가 부각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대규모 인출을 감내할 수 있고, 재무제표 또한 견고하다는 점이 부각된 가운데 스위스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우호적. 결국 한국 증시는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로 0.7%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낙폭을 확대하기 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둔화와 소비 감소

미국 2월 소매판매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3.2% 증가나 예상치인 0.3% 감소보다 부진한 0.4% 감소로 발표. 운송과 가솔린을 제외한 수치는 전월 대비 2.8% 증가를 뒤로하고 보합을 보여 예상치인 0.9% 감소보다는 양호.

미국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3% 상승을 뒤로하고 전월 대비 0.1% 하락. 전년 대비로는 5.7%에서 4.6%로 하락. 식품과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수치는 전월 대비 0.5% 상승에서 0.2%로 둔화된 가운데 전년 대비로는 4.4%를 유지.

3월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5.8이나 예상치인 -7.7을 크게 하회한 -24.6으로 발표. 신규주문이 -7.8에서 -21.7로 크게 위축된 가운데 고용지수 등 대부분이 둔화.

1월 기업 재고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3% 증가에서 0.1% 감소로 위축.

미국 3월 주택 시장 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42나 예상치인 41를 상회한 44로 발표. 비록 기준선인 50을 하회하고 있으나,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주택 지표 개선을 기대



국채 금리,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로 급락

국제유가는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특히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달러화의 강세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 중 하나. 이 여파로 WTI가 배럴당 70달러 미만으로 하락해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미국 천연가스는 미국의 기온이 역사적인 평균을 상회하는 등 온화한 날씨로 수요 둔화 이슈가 부각되자 하락.

달러화는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유로화는 유럽 금융 섹터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유로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달러 대비 약세. 다만, 스위스 중앙은행이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을 발표하자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세폭 축소.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강세.

국채금리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이 진행된 가운데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급락. 이러한 소식에 한 때 CME FedWatch에서는 3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확률이 70%로 증가하기도 했음. 그렇지만, 장 후반 스위스 정부의 지원안 논의와 스위스 중앙은행의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한 유동성 공급 가능성 등이 발표되자 금리 하락폭이 일부 축소됐으며 금리 동결 확률은 40%대로 낮아짐.

금은 달러 강세 불구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CS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곡물은 흑해에서의 미-러 군사적 충돌과 중국내 수요 증가 기대로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08%, 철근은 1.65%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7.61	-4.33	-10.98	Dollar Index	104.738	+1.10	-0.87
브렌트유	73.69	-3.85	-9.91	EUR/USD	1.0575	-1.47	+0.28
천연가스	2.44	-4.12	-3.29	USD/JPY	133.39	-0.62	-2.89
금	1,931.30	+0.64	+5.75	GBP/USD	1.2055	-0.85	+1.77
은	21.88	-0.52	+8.80	USD/CHF	0.9338	+2.14	-0.85
알루미늄	2,277.00	-3.21	-3.27	AUD/USD	0.6619	-0.94	+0.46
전기동	8,504.30	-3.73	-4.56	USD/CAD	1.3768	+0.60	-0.27
아연	2,866.00	-1.50	-3.66	USD/RUB	76.4640	+0.97	+0.54
옥수수	626.50	+0.72	-0.04	USD/BRL	5.2937	+0.75	+2.95
밀	702.75	+0.75	+2.04	USD/CNH	6.8925	+0.18	-1.09
대두	1,489.25	-0.37	-1.94	USD/KRW	1,303.70	-0.56	-1.34
커피	172.60	-1.62	-2.68	USD/KRW NDF1M	1,312.25	+0.78	-0.20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455	-23.44	-53.65	스페인	3.262	-22.20	-40.10
한국	3.420	+4.50	-29.20	포르투갈	3.088	-22.70	-42.30
일본	0.329	+5.50	-17.60	그리스	4.232	-10.10	-21.90
독일	2.130	-29.00	-51.60	이탈리아	4.111	-15.40	-31.7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